

지금 유럽은 미술향연

세계 최대 미술장터 '바젤 아트페어'



'명품 미술 장터'인 스위스 2009 바젤아트페어가 세계 미술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사진은 이번 아트페어 전시장(왼쪽)과 전시장 입구에 몰려든 컬렉터들의 모습.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타작가들의 최고 작품 전시

스위스 바젤=오광록기자

세계 최대 미술 장터인 2009 바젤아트페어가 지난 10~14일 열려 유명 작가들의 명작을 소개했다. 인구 20만명의 스위스 소도시 바젤은 이 기간 동안 '아트페어 특수'를 누렸고, 20여 개의 미술관도 '고흐'전 등 아트페어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

▲세계 최고의 명품 미술시장

지난 10일 오전, 스위스 바젤아트페어 전시장 주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람객과 컬렉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계 최고급 미술장터인 바젤아트페어의 개막에 맞춰 누구보다 빨리 입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바젤 아트페어는 세계적 수준의 화랑들이 내로라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최대 미술장터이다. 올해 40회를 맞은 이번 아트페어에는 미국 화랑 75곳, 독일 56곳, 스위스 33곳, 영국 28곳 등 29개국의 대표적 화랑 300여곳이 참가해 작가 2천500여명의 작품 4천여점을 전시, 판매했다.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와 PKM 갤러리가 참여했다. 국제갤러리는 이우환, 양혜규, 구본창, 이기봉, 신미경, 조덕현, 게르하르트 리히터, 데미안 허스트, 아시시 카푸어, 루이스 부르주아,

관람객·컬렉터 '인산인해'

도시 전체가 미술 축제 경기침체로 판매는 부진

빌 비올라의 작품을 내놓았다. PKM갤러리는 설치작가 이불을 비롯 김상길, 크레이그 마틴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젊은 갤러리들이 모여 만든 '볼타쇼'와 '리스테',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내놓은 '스코프 바젤' 등도 함께 열려 관람객을 맞았다. 스코프에는 한국에서 조현화랑, 관훈갤러리, 갤러리가이아, 나갤러리 등 4곳이 참여했다.

각 부스에는 피카소, 페르낭 레제, 자코메티, 뒤뷔페,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내놨지만 경제 불황으로 판매는 신통치 않았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10~30% 정도 낮았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이번 아트페어의 디자인 관련 행사로 열린 '디자인 바젤'에 참가한 한국 화랑 갤러리서미의 부스에서 경희대 장진 교수의 도자기 작품 '집과 그릇' 등을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시 전체가 미술 축제, 아트페어 특수 바젤은 독일, 프랑스 접경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으로 유럽의 갑부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의 컬렉터들이 대거 몰려든다. 지난해에는 6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바젤아트페어는 비슷한 시기에 개막한 2009 베니스비엔날레와 연계돼 '베니스에서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바젤에서 구입'하려는 컬렉터들이 많았다. 실제 베니스비엔날레 주전시회에 참여한 일본의 한 사진작가 작품은 바젤아트페어 개막 첫날 전량 판매됐다.

이처럼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것은 아트페어와 지역 내 20여개의 미술관을 연계한 '문화 페스티벌'을 함께 열기 때문이다.

이곳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하나인 쿤스트뮤지움은 아트페어 기간 동안 반 고흐의 특별전을 마련했고, 바이엘러재단 미술관에서는 조각가 자코메티전이 열려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작품 판매와 함께 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젊은 작가들의 특색 있는 작품을 모은 'unlimited'전도 함께 선보였다. 'unlimited'전에는 요시토모 나라 등 인기작가들과 신예들의 작품이 많아 세계에서 몰려든 큐레이터와 미술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트페어 전시장과 미술관은 거미줄처럼 펼쳐진 트램(노면전차)을 통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고, 각 호텔들은 투숙객에게 트램 자유이용권을 나눠주며 아트페어를 홍보했다.

세계적인 미술 행사답게,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도 훌륭했다. 어린이들을 맡기고 차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아트 놀이터'를 마련했고, 작가들이 그린 만화책과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등도 잘 꾸며졌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부 화랑들이 작품 가격을 낮추다 보니 전시의 질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는 평이다.

/kroh@kwangju.co.kr



광주박물관 '초현대식 전시공간' 새단장

22일부터 1년간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멀티미디어 시설 강화...교육관서 전시 계속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하 광주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초현대식 전시공간으로 새단장한다.

광주박물관은 오는 22일~2010년8월31일까지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박물관의 대표유물은 교육관에 전시된다.

연면적 7,055㎡(지상2층, 지하4층)의 전시관 내부는 구조 보강과 내부 시설 교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디지털 세대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이 강화되고, Led 조명이 설치된다.

선사·고대문화실은 거래와 함께 한 싯문화를 아시아 문화코드로 한 농경문화실 등으로 특성화된다. 중세문화실에는 불교문화실과 유교문화실, 남도의 멋과 향의 문화실, 꽃피운 도자문화실 등으로 꾸며지고, 서화문화실, 역사문화실 등도 만들

어진다. 공사기간 중에도 교육관을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국립광주박물관 대표유물전' 등을 연다. 이 전시에는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유물(국보 제143호)과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제295호),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목기유물을 선보인다. 또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국립광주박물관 30주년 사진전', '박물관에서 펼쳐진 색의 향연' 등도 교육관에서 열린다. 광주박물관은 또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광복 토요문화마당과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 세계로 오세요"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24일 문예회관 ... 소프라노 마게르 협연

광주시향교향악단(삼일지휘자 구자범)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 세계로 광주 시민을 초청한다.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 249회 정기연주회는 '죽음, 그 삶의 달콤한 노래'라는 주제 아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곡으로만 레퍼토리를 꾸렸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삽입됐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유명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출신 작곡가로 오페라, 교향



마게르

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오페라 '살로메' 중 '일곱 베일의 춤',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조곡, 저녁 노을 안에서' '잠자리에 들며', '봄' '9월' 등으로 구성된 '4개의 마

지막 노래', '죽음과 정화' 등으로 대부분 광주시향이 초연하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독일에서 활동중인 정상급 소프라노 엘레오노레 마게르가 협연 무대를 갖는다.

마게르는 라 스칼라 극장, 바이마르 국립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소피아 보리스 크르시토프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대학생까지 50%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장을 찾아온 가야금+거문고+소리 공연

20일 대인시장 '실개천'

대인시장 입주작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인시장에 동지를 틈 '문화사랑방 실개천'(이하 실개천)이 '시

장을 찾아온 가야금+거문고+소리의 어울림'을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20일 오후5시 문화사랑방 실개천. 우리소리연구회 가항(대표 김은숙)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

야금 병창 '호남가',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국악가요 '배 띄워라', 남도 민요 '성주풀이' 등을 선보인다.

'실개천'은 소리꾼인 김지연씨가 입주해 있는 공간으로 지역 국악 애호가들이 함께 운영을 맡고 있다. 문의 06-233-31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명품아울렛-럭시티' (Premium Outlet-Luxity) featuring a large building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방수와 단일이 하나로' (Waterproofing and Single in One)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chnical diagrams.